

# 전국 농가의 읍·면 거주지역별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 비교

: 2008 농촌생활지표 자료를 중심으로\*

##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using Environments of Agricultural Households by Eup·Myun Area

: Analyses of 2008 Survey Data on the Rural Living Indicators

한국교원대학교 제3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조 재 순\*\*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Professor : Cho, Jae-Soo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nationwid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using environments of agricultural households and the differences of them by Eup-Myun Areas. The data were subsample of the 2008 survey on the rural living indicators colle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nly agricultural households, 73.7% of the original nationwide data (1,461 households out of 1,983) sampled by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ing methods and face to face interview in Aug. 2008, were selected and the cross-tabulation( $\chi^2$ ) was mainly used to find the difference by Eup-Myun areas through spss 12.0 for window.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households such as head of household, family,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were mainly differed by Eup-Myun Areas. Agricultural households in Eup area were more likely low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an were those in Myun area. Housing environments were less likely tha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ffered by Eup-Myun areas. Improvements of drinking water system, housing alteration, order, and garbage system were need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s of agricultural households. This study suggests the use of annual survey on the rural living indicators data would be applicable to various research subjects of home economics.

---

▲주요어(Key Words) : 농가(agricultural household), 주거환경(housing environment), 읍·면지역 (Eup·Myun area), 농촌생활지표 (rural living indicator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전국 주거상황은 지난 수십년간 공동주택 위주의

\*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2010학년도 연구년 교수로 선정되어 연구한 논문임.

\*\* 주저자·교신저자 : 조재순 (E-mail : jscho@knue.ac.kr)

신규주택공급 정책에 힘입어 주택보급율, 평균주택면적, 주택당방수를 비롯한 주택 양적지표와, 1가구 1주택 거주률, 가구당 평균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사용방수 등 가구주 거주준과, 온수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등 주거시설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주거학연구회, 2005; 통계개발원, 2008).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주택공급이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도·농간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한 주택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윤

주현 편, 2002; 주거학연구회, 2005; 주대관, 2005).

농촌주택은 전국적인 주거실태 향상 추세를 따라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지역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질적으로 열악하고 주택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하성규·윤원근, 1989; 김정호, 2005; 이해욱, 2009). 국가통계에서 시에 비해 읍면으로 분류되는 농촌지역은 거주인구비율이 1970년 전체인구의 58.9%에서 2005년 18.5%로, 가구비율은 같은 기간에 57.4%에서 19.8%로, 주택수비율은 67.9%에서 24.4%로 인구·가구·주택비율이 각각 약1/3내외로 감소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1b, 2011c; 윤주현 편, 2002). 이러한 감소추세로 도시가구에 비해 농촌가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울러 농촌주택이 농경지와 임야 등에 따라 넓게 분산되어 있어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활과학 연구대상에서 농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 아니라 연구대상지역이 소수 마을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비교하거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조재순, 2000, 2007).

공공기관이 수집한 전국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농촌주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통계청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수 수집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는 전국 동과 읍면의 주거 실태를 빈도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연구자는 원시자료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총조사 보고서를 이용한 2차자료 분석이 가능하다(조재순, 1999; Cho, 2008). 이를 통해 한 시점에서는 물론 시계열적으로 농촌주택 자체나 도·농간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국가통계포털, 2011a)에는 총조사 보고서 자료의 일부를 간단하게 보기 쉽게 퍼센트로 전환하여 실고 있다. 농촌지역이라도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통계청, 2011d)에서 보면, 읍지역 인구는 2000년 8.1%에서 2005년 8.3%로, 다시 2010년 8.6%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면지역 인구는 2000년 12.2%에서 2005년 10.2%로, 다시 2010년에는 9.3%로 감소하고 있어 농촌인구의 감소는 읍지역보다 면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읍면지역의 인구이동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이동(Rossi, 1980)은 주거이동과 함께 이들이 거처할 주거와 거주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주택총조사와 이에 기초한 2차자료는 읍면을 합쳐 제시하고 있어 읍면간 차이를 알 수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2008, 2009)는 전국 9개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읍면을 확률표집한 것으로, 자료는 농가와 비농가의 인구 및 사회, 가족생활, 여가생활,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정보화,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생산 및 소비, 교육 등 10개 부문을 매년 5개 부문씩 격년으로 수집한다.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이며 농촌생활에 초점을 두고 구성된 특징을 갖고 있다. 기관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에는 읍·면별, 농가·비농가

별로 전체는 빈도로, 변수의 속성은 퍼센트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조사기관에서 최근 이 자료를 일반연구자에게 원시자료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전국적인 농촌생활 실태나 생활변화 분석과 함께 읍면지역별 차이 분석이 가능해졌다.

농촌에는 영농활동을 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비농가도 있으며 이들의 주거요구가 다르기 때문에(장성준, 2010; 정건채, 2005) 이 연구에서는 농촌생활지표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에 초점을 두고 전국 농가의 읍·면 거주지역별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전국 농가의 전반적인 가구특성과 주거상황 파악 및 이들의 읍면지역별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생활과학 연구에 농촌생활지표 원시자료의 적용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공공자료의 활용성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내용

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목적 1> 농가의 일반적 특성을 가구주특성, 가족특성, 경제특성으로 나눠 읍면지역별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 <연구목적 2> 농가의 주거환경을 주택외부특성, 주택내부 특성, 주택수리상황, 상수와 쓰레기 처리, 거주 지역의 악취정도와 주거환경만족도로 나눠 읍면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II. 농촌생활지표조사자료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개발 속에서 도시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농촌에 대한 생활과학연구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촌은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친환경적인 자연을 가진 어메니티 공간이며, 전통생활문화를 유지하는 고향으로서 거주인 뿐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맺는 중요한 생활터전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나 다문화가정 정착도 앞서고 있어 변화하는 가정생활의 선형적인 연구대상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하는 농촌생활지표조사(농촌진흥청, 2008, 2009)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자원환경과가 농촌주민의 생활실태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사업과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국가기초통계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 통계가 없는 지표를 중심으로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를 거쳐 2000년 이후는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조사주기와 조사항목의 변화를 통해 2007년부터는 인구 및 사회, 가족생활, 여가생활,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정보화,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생산 및 소비, 교육 등 다양한 농촌생활의 실태와 양적 질적 의식수준에 관한 10개 부문을 매년 5개 부문 씩으로 나눠 조사한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2008년 농촌생활지표조사(농촌진흥청, 2008)는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생산 및 소비, 교육부문이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한국행정구역편람의 읍·면 리스트에 기초하여 전국 읍·면 지역(2005년 현재 읍 210개, 면 1,200개)에 거주하는 모든 일반가구를 모집단으로 다단계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114개 시·군, 200개 읍·면, 400개 마을을 단계별로 추출한 후, 해당지역 면사무소나 이장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가구명부에서 표본 가구 2,000호를 계통 추출한 것이다. 2008년 8월 18일~31일(2주간) 조사자가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하였으며,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생일날짜가 가장 빠른 사람이 응답하였다.

이 자료의 특징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의 일부가 매년 조사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2007년에 조사한 대상자로부터 2008년 자료도 수집함으로써 2년에 걸쳐 동일한 대상로부터 5개 부문씩 10개 부문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2009년에는 격년으로 2007년에 조사한 부문의 내용을 50%는 이전 표본 가구에서 나머지 50%는 신규 조사대상자로 대체하여 조사함으로써 동일한 조사대상의 시계열적 추적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집 설계되어 있어 이 자료를 활용하여 횡단적, 종단적, 패널 추적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보고서의 자료는 읍·면별, 농가·비농가별로 변수전체는 빈도로, 변수의 속성은 퍼센트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개인연구자가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조사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이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고서와 차별화하기 위해 농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주거는 개인이나 가족의 기본 생활공간단위일 뿐 아니라 주거생활은 가족생활과 상호작용하면서 유지·변화하기 때문에 주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거자체와 더불어 가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조사한 2008년 농촌생활지표 원시자료 중 가구와 농가 부문 문항 일부와 주거와 환경 부문 문항 전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거와 환경부문 자료는 2008년과 2010년에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사용가능한 2008년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입수하였다. 입수된 자료는 담당기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쓰인 SPSS 데이터 형태이다.

유효한 원시자료 1,983가구의 영농여부는 농가 73.7% (1,461호), 비농가 26.3%(522호)이다(농촌진흥청, 2008). 원시자료 가운데 1,461호 농가(1)만을 선택하여 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농가자료만 선택함으로써 원시자료보다 읍지역 거주가구가 35.8%에서 31.4%로 다소 감소한 반면, 면지역 거주가구는 64.2%에서 68.6%로 다소 증가하였다.

분석한 문항은 일반적 특성으로 가구주 특성(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족특성(가구원수, 취학전 자녀유무, 초중고교 취학자녀유무), 경제특성(영농규모, 농가형태, 연평균가구소득, 소득만족도)과, 주거환경실태로 주택외부 특성(주거 유형, 단독주택의 외형, 담장방식, 건축경과년수), 주택내부 특성(부엌유형, 화장실 유형, 목욕시설, 난방시설), 주택수리상황(지난 2년간 주택 수리여부와 수리한 부분, 생활하기 불편하여 앞으로 수리하기 원하는 부분), 상수와 쓰레기 처리(상수원 종류, 수도물 수질,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폐영농자재 처리), 거주지역의 악취정도와 주거환경만족도이다. SPSS 12.0 for window를 활용하여 원시자료 중 출생년도와 주택건축년도는 2008년을 기준으로 연령과 건축경과년수로 전환하였으며 농가의 읍·면 거주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이나 t-test를 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읍·면지역별 농가의 일반적 특성

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가구주특성, 가족특성, 경제특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 1) 읍·면지역별 농가의 가구주특성

<표 1>에서와 같이 농가 가구주는 남자(88.4%)가 여자(11.6%) 보다 거의 8배가량 많았으며, 읍지역이 면지역보다 남성 가구주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면지역은 읍지역 보다 여성 가구주 비율이 더 높았다.

농가 가구주 연령은 60대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1) 농가의 정의: 농가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며, 이 때 정부, 학교, 종교단체 등으로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현재 경지 10a(약 1,000m<sup>2</sup>)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2. 시설작물 3a(약 330m<sup>2</sup>)이상,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약 660m<sup>2</sup>)이상 재배하는 가구
3. 현재 대가축(한우, 젃소, 고기소) 1마리, 중가축(돼지, 면양, 산양) 3마리, 소가축(토끼), 가금(닭, 오리, 칠면조 등) 40마리이상 사육하거나 꿀벌 5군 이상 치는 가구
4. 각호별 규모 이외의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이상이므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출처: 농촌진흥청(2008). 2008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p. 19.

&lt;표 1&gt; 지역별 농가의 가구주특성

N(%)

		읍	면	계	
성 별	남자	425(92.6)	866(86.4)	1291(88.4)	$\chi^2=11.64^{***}$
	여자	34( 7.4)	136(13.6)	170(11.6)	
연 령	50세 미만	86(18.7)	123(12.3)	209(14.3)	$\chi^2=15.01^{***}$
	50세~59세	128(27.9)	286(28.5)	414(28.3)	
	60세~69세	118(25.7)	331(33.0)	449(30.7)	
	70세 이상	127(27.7)	262(26.1)	389(26.6)	
학 력	중졸이하	277(60.3)	742(74.1)	1019(69.7)	$\chi^2=28.02^{**}$
	고졸이상	182(39.7)	260(25.9)	442(30.3)	
직 업	농축어업	406(88.5)	931(92.9)	1337(91.5)	$\chi^2=9.00^*$
	기타직업	37( 8.0)	44( 4.4)	81( 5.6)	
	주부·학생·무직	16( 3.5)	27( 2.7)	43( 2.9)	
계		459(31.4)	1002(68.6)	1461(100)	

\*p&lt;.05, \*\*p&lt;.01, \*\*\*p&lt;.001

&lt;표 2&gt; 농가가구주 특성간의 관계

 $\chi^2$ (교차분석결과)

	농가전체	읍	면
연령-성별	56.48***	13.16**	41.38***
학력-성별	70.98***	24.13***	43.35***
직업-성별	1.49	21.94**	2.48
학력-연령	272.89***	66.55***	137.24***
직업-연령	121.21***	68.52***	54.66***
직업-학력	11.62**	8.46*	2.69

\*p&lt;.05, \*\*p&lt;.01, \*\*\*p&lt;.001

다음은 50대(28.3%), 70대 이상(26.6%), 50세 미만(14.3%) 순으로 43.5%가 65세 이상이며 평균은 61.6세이었다. 농가의 읍·면 거주지역별로 보면, 읍지역 농가 가구주는 면지역 농가 가구주 보다 50세 미만이 더 많은 반면, 면지역 농가 가구주는 읍지역 농가 가구주 보다 특히 60대의 비율이 높았다. 읍지역 농가가구주 평균연령은(60.53세)은 면지역 농가가구주 평균연령(62.11세) 보다 1.58세 젊은 편이었다.

가구주 학력은 중졸이하(69.7%)가 고졸이상(30.3%) 보다 2.3배가량 많았으며 중졸이하의 절반은 초등학교졸업이었다. 농가의 거주지역별로 보면, 읍지역 거주 가구주는 면지역 가구주보다 고졸이상은 많고 중졸이하는 적었다.

농가의 가구주 직업은 91.5%가 농·축업이었으며, 소수가 농·축업 이외의 직업(5.6%)이나 주부·학생·무직(2.9%)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면지역 거주 가구주가 읍지역 거주 가구주보다 농·축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반대로 읍지역 거주 농가 가구주는 면지역 농가 가구주 보다 농·축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의 가구주 특성은 읍·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주특성들간의 관계와 이 관계가 읍·면 거주지역을 통제 한 후에는 계속되는지를 알아보았다(<표 2> 참조). 가구주특성 4변수로 만들 수 있는 6가지 두변수간의 관계(<표 2> 참조, 좌측)는 직업과 성별간의 관계 하나만을 제외하고 5가지 관계가 모두 유의하여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보다 70세 이상이거나, 중졸이하인 비율이 높았으며, 고연령은 저학력이나 농업종사 또는 무직 비율이 높았고, 고졸이상은 중졸이하 보다 농축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읍면지역을 통제 한 후 가구주특성 두 변수들간의 관계(<표 2> 참조, 우측)는 부분적으로 지역간 차이가 있어 읍지역에서는 두 변수간 관계가 모두 유의했으나 면지역에서는 가구주 성별과 직업간, 학력과 직업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특성들간의 관련성이 면지역보다 읍지역 농가에서 더욱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읍·면지역별 농가의 가족특성

농가의 가족특성 중 가구원수는 <표 3>에서와 같이 2인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인(16.4%), 4인(13.4%), 1인(11.0%) 순으로 58.0%가 1~2인 가구이었으며 평균 2.76인이었다. 농가의 읍·면 거주지역별로 보면, 4인이상 가구는 읍지역에 3인이하 가구는 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다른 경우 보다 높아 읍지역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3.03인)가 면지역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2.63인)보다 많았다. 1인 농가가구비율은 면지역이 읍지역의 거의 2배 가까이 되었다.

취학전 자녀가 있는 농가는 5.5%로 거의 20가구 중에 한 가구 풀이었는데, 읍지역 거주 농가(7.6%)가 면지역 거주 농가(4.5%)보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가(27.2%)는 4가구 중 한 가구 약간 넘는 꼴로, 이 역시 읍지역 거주 농가(31.6%)가 면지역 거주 농가(25.2%)보다 높았다.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취학자녀가 있는 농가비율은 고등학교(14.3%), 중학교(12.5%), 초등학교(9.2%) 순으로 낮았으며 이것은 이보다 더 낮은 미취학자녀가구 비율(5.5%)로 이어져 뚜렷한 저출산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3) 읍·면지역별 농가의 경제특성

농가의 형태를 전업농가(농사에만 종사하는 가구원이 있는 농가로 농업이외에 연간 30일미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포함)와 겸업농가(농사이외의 일이나 겸업에 연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 농업수입>농업이외수입; 2종: 농업수입<농업이외수입)로 나뉘보면, 61.9%가 전업농업인 반면 38.1%가 겸업농가로, 농가의 약 2/5가 농업이외의 수입을 갖고 있었다(<표 4> 참조). 겸업농가인 경우는 농업소득보다 겸업소득이 더 많은 2종 겸업농가 비율(22.1%)이 겸업소득보

다 농업소득이 더 많은 1종 겸업농가비율(16.0%) 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업농가는 면지역 농가(63.3%)가, 2종 겸업농가는 읍지역농가(26.4%)가 각각 다른 지역 농가보다 더 많았다.

논밭의 크기와 가축수 및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한 영농규모는 소농(67.6%), 중농(25.0%), 대농(7.4%) 순으로 농가의 2/3가 소농이었다. 농가의 영농규모는 읍·면거주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농가의 연평균가구소득은 2,000만원이상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00만원이상~2,000만원 미만 (26.1%),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21.4%), 500만원미만(15.8%) 순으로, 평균 약1,800만원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읍지역 농가는 2,000만원이상, 면지역농가는 2,000만원 미만의 비율이 더 많았다. 소득구성요소로 보면, 연평균소득 중 농업소득은 읍(약 1,230만원)·면(약 1,130만원)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농업의 소득은 읍지역 농가(약 800만원)가 면지역 농가(약 565만원)보다 더 많아 결과적으로 농업소득과 농업의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이 읍(약 2,000만원)·면(약1,700만원) 지역별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가구소득만족도는 농가의 2/5(40.1%)가 보통으로, 이와 비슷한 37.6%가 다소 불만족하여 만족(6.4%) 보다는 불만족(53.5%)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본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과 다소불만족 사이(3.62)에 속하며,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읍·면지역별 농가의 영농규모와 농업소득은 비슷하나 읍지역 농가가 농업의 소득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득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소득만족도가 소득액수 자체뿐만 아니라 미취학이나 취학자녀수유무, 가족수와 같은 가족특성과, 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같은 가구주 특성이 종합적

<표 3> 지역별 농가의 가족특성

N(%)

		읍	면	계	
총가구원 수	1인	31( 6.8)	129(12.9)	160(11.0)	$\chi^2=39.31^{***}$
	2인	198(43.1)	488(48.7)	686(47.0)	
	3인	70(15.3)	169(16.9)	239(16.4)	
	4인	79(17.2)	117(11.7)	196(13.4)	
	5인	52(11.3)	51( 5.1)	103( 7.0)	
	6인이상	29( 6.3)	48( 4.8)	77( 5.3)	
취학 전 자녀 유무	있음	35( 7.6)	45( 4.5)	80( 5.5)	$\chi^2=5.98^*$
	없음	424(92.4)	957(95.5)	1381(94.5)	
초중고 자녀 유무	있음	145(31.6)	253(25.2)	398(27.2)	$\chi^2=6.39^*$
	없음	314(68.4)	749(74.8)	1063(72.8)	
계		459(31.4)	1002(68.6)	1461(100)	

\*p<.05, \*\*p<.01, \*\*\*p<.001

&lt;표 4&gt; 지역별 농가의 경제특성

N(%)

		읍	면	계	
영농규모	대농	36( 7.8)	72( 7.2)	108( 7.4)	$\chi^2=65$
	중농	109(23.7)	256(25.5)	365(25.0)	
	소농	314(68.4)	674(67.3)	988(67.6)	
농가형태	전업농가	269(58.6)	635(63.3)	904(61.9)	$\chi^2=7.04^*$
	1종 겸업농가	69(15.0)	165(16.5)	234(16.0)	
	2종 겸업농가	121(26.4)	202(20.2)	323(22.1)	
연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	62(13.6)	167(16.8)	229(15.8)	$\chi^2=8.42^*$
	500만원~1000만원 미만	89(19.5)	222(22.3)	311(21.4)	
	1000만원~2000만원 미만	114(25.0)	265(26.6)	379(26.1)	
	2000만원 이상	191(41.9)	341(34.3)	532(36.7)	
소득 만족도	매우만족	2( 0.4)	2( 0.2)	4( 0.3)	$\chi^2=5.76$
	다소만족	30( 6.5)	60( 6.0)	90( 6.2)	
	보통	172(37.5)	414(41.3)	586(40.1)	
	다소 불만족	190(41.4)	359(35.8)	549(37.6)	
	매우 불만족	65(14.2)	167(16.7)	232(15.9)	
계		459(31.4)	1002(68.6)	1461(100)	

\*p&lt;.05, \*\*p&lt;.01, \*\*\*p&lt;.001

&lt;표 5&gt; 농가경제특성간의 관계

 $\chi^2$ (교차분석결과)

	농가전체	읍	면
농가형태-영농규모	43.40***	10.08*	34.96***
연소득-영농규모	329.51***	85.44***	252.82***
소득만족도-영농규모	23.00***	10.09	21.68***
연소득-농가형태	154.96***	62.87***	97.20***
소득만족도-농가형태	25.52***	22.99***	15.74*
소득만족도-연소득	70.97***	43.41***	41.92***

\*p&lt;.05, \*\*p&lt;.01, \*\*\*p&lt;.001

으로 고려된 평가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변수간의 관계와 이 관계가 읍·면 거주지역을 통제한 후에는 계속되는지를 알아보았다(<표 5> 참조). 경제특성 4변수로 만들 수 있는 6가지 두변수간의 관계(<표 5> 참조, 좌측)는 모두 유의하여 영농규모가 중·대농가는 겸업, 고소득, 높은 소득만족도 비율이 높았고, 전업농가는 소득이나 소득만족도가 낮은 비율이, 낮은 소득은 낮은 소득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읍·면지역을 통제한 후에도 이들 두 변수의 6가지 관계(<표 5> 참조, 우측)는 읍지역에서 영농규모별 소득만족도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경제특성들간의 관련성은 읍지역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읍지역에서 나타난 예외관계는 읍지역 농가의 1·2종겸업 비율이 높아 영농규모 자체와 소득만족도와의 관련성이 면지역보다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읍·면지역별 농가의 주거환경

농가의 주거환경은 주택외부특성, 주택내부특성, 주택수리상황, 상수와 쓰레기 처리방법, 거주지역의 악취정도와 주거환경만족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 1) 읍·면지역별 농가주택의 외부특성

<표 6>에서와 같이 농가의 주거유형은 거의 대부분(95.6%)이 단독주택이었으며, 아파트(1.9%), 다세대주택(1.2%), 조립식주택(0.8%), 상가주택(0.5%)이 매우 소수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읍지역 농가가 면지역 농가보다 단독주택 비율은 다소 낮은 반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의 비율은 다소 높았다. 단독주택의 외형은 스라브 양육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슬레이트 한옥(26.8%), 기와 한옥(16.0%) 순이었다. 대략 한옥과 양육이 반반으로 단독주택의 외형은 지역별로

<표 6> 지역별 농가의 주택외부 특성

N(%)

		읍	면	계	
주거유형	단독주택	428(93.2)	969(96.7)	1397(95.6)	$\chi^2=16.84^{**}$
	아파트	17( 3.7)	11( 1.1)	28( 1.9)	
	다세대주택	8( 1.7)	9( 0.9)	17( 1.2)	
	상가주택	4( 0.9)	3( 0.3)	7( 0.5)	
	조립식	2( 0.4)	10( 1.0)	12( 0.8)	
단독주택의 외형	기와한옥	68(15.9)	156(16.1)	224(16.0)	$\chi^2=7.70$
	슬레이트 한옥	113(26.4)	261(26.9)	374(26.8)	
	기타한옥	22( 5.1)	72( 7.4)	94( 6.7)	
	스라브 양옥	188(43.9)	370(38.2)	558(40.0)	
	기타양옥	22( 5.1)	75( 7.7)	97( 6.9)	
담장방식	기타	15( 3.5)	35( 3.6)	50( 3.6)	$\chi^2=17.45^{**}$
	없음	107(23.3)	324(32.3)	431(29.5)	
	벽돌식	213(46.4)	415(41.4)	628(43.0)	
	돌	45(10.0)	66( 6.6)	112( 7.7)	
	흙	6( 1.3)	15( 1.5)	21( 1.4)	
	생울타리	30( 6.5)	48( 4.8)	78( 5.3)	
건축경과년수	혼합형	57(12.4)	134(13.4)	191(13.1)	$\chi^2=23.69^{***}$
	10년 미만	80(17.4)	187(18.7)	267(18.3)	
	10~20년 미만	150(32.7)	323(32.3)	473(32.4)	
	20~30년 미만	92(20.0)	140(14.0)	232(15.9)	
	30~40년 미만	68(14.8)	110(11.0)	178(12.2)	
40년 이상	69(15.0)	242(24.2)	311(21.3)		
계		459(31.4)	1002(68.6)	1461(100)	

\*p<.05, \*\*p<.01, \*\*\*p<.001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농가주택 10채 중 3채(29.5%)가량은 담장이 없었다. 담장방식은 벽돌식(43.0%)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돌(7.7%), 생울타리(5.3%), 흙(1.4%), 혼합형(13.1%) 담장이 있었다. 담장이 있는 농가만 보면, 60% 이상이 벽돌식 담장인 것이다. 지역별로는 면지역 농가가 읍지역 농가보다 담장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담장이 있는 농가만 보면, 담장방식은 읍·면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이 벽돌식 담장이 주류이고 그 외 담장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농가주택의 건축경과년수는 10년이상~20년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년 이상(21.3%), 10년미만(18.3%), 20년이상~30년미만(15.9%), 30년이상~40년미만(12.2%)으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전체평균은 약 26년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면지역농가가 읍지역농가보다 40년이상된 주택에, 읍지역

농가는 면지역농가보다 20년이상~30년미만된 주택에 사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전체 평균의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농가건축경과년수는 주거유형과 관련이 있어( $\chi^2=48.42$ ,  $p<.01$ ) 단독주택은 30년이상인, 아파트와 조립식주택은 10년미만이나 20년 미만인, 다세대주택과 상가주택은 10년이상~20년미만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읍면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났다(표 생략).

이상에서 농가의 주택외부는 면지역이 읍지역 보다 담장이 없고, 주택이 40년 이상 되고, 단독주택이 더 많으나, 단독주택의 외형은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지역 모두에서 단독주택은 다른 주거유형보다 지은 지 오래된 경우가 많았다.

&lt;표 7&gt; 지역별 농가의 주택내부 특성

N(%)

		읍	면	계	
부엌 유형	재래식	22( 4.8)	49( 4.9)	71( 4.9)	$\chi^2=3$
	절충식	22( 4.8)	50( 5.0)	72( 4.9)	
	입식	415(90.4)	903(90.1)	1318(90.2)	
화장실 유형	재래식	68(14.8)	185(18.5)	253(17.3)	$\chi^2=2.93$
	개량식	33( 7.2)	70( 7.0)	103( 7.0)	
	수세식	358(78.0)	747(74.6)	1105(75.6)	
목욕시설	온수목욕가능	411(89.5)	851(84.9)	1262(86.4)	$\chi^2=7.91^*$
	비온수목욕가능	29( 6.3)	71( 7.1)	100( 6.8)	
	없음	19( 4.1)	80( 8.0)	99( 6.8)	
난방시설 종류	기름보일러	260(56.6)	564(56.3)	824(56.4)	$\chi^2=10.65$
	가스보일러	25( 5.4)	26( 2.6)	51( 3.5)	
	전기보일러	104(22.7)	257(25.6)	361(24.7)	
	연탄보일러	27( 5.9)	46( 4.6)	73( 5.0)	
	겸용보일러	27( 5.9)	65( 6.5)	92( 6.5)	
	나무보일러	11( 2.4)	27( 2.7)	38( 2.6)	
	재래식 아궁이	5( 1.1)	17( 1.7)	22( 1.5)	
	계	459(31.4)	1002(68.6)	1461(100)	

\*p&lt;.05, \*\*p&lt;.01, \*\*\*p&lt;.001

## 2) 읍·면지역별 농가주택의 내부특성

농가주택의 내부특성으로 부엌유형은 거의 대부분 입식(90.2%)이었으며 절충식이나 재래식 부엌이 각각 소수(4.9%) 있었다(<표 7> 참조). 화장실은 수세식이 7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17.3%), 개량식(7.0%) 순이었다. 이 부엌유형과 화장실 유형은 읍·면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욕시설은 대부분(86.4%) 농가가 온수목욕 가능한 시설이 있었으며, 비온수 목욕이 가능하거나 목욕시설이 없는 농가가 각각 6.8%씩 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읍지역 농가가 면지역 농가보다 온수목욕 가능한 시설 더 많은 반면, 면지역 농가는 읍지역 농가에 비해 목욕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난방시설은 극소수(1.5%)의 재래식 아궁이를 제외하고는 보일러인데, 보일러 연료원은 80% 이상이 기름(56.4%)이나 전기(24.7%)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 연탄(5.0%)이나, 가스(3.5%), 나무(2.6%), 혹은 겸용(6.3%)으로 난방하고 있었다. 가스보일러는 읍지역에서, 전기보일러는 면지역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농가주택의 부엌, 화장실, 난방시설 같은 내부특성은 읍·면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비슷했으며 단지 목욕 시설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 3) 읍·면지역별 농가의 주택수리상황

최근 2년 동안 주택을 수리한 농가는 28.3%로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주택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지역별로는 읍지역 농가(31.2%)가 면지역농가(27.0%) 보다 주택을 수리한 경우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5)을 약간 넘었다(p<.06).

주택을 수리한 414호 농가는 보통 1곳(64.0%) 이나 2곳(15.0%) 정도를 수리하였으나 3~4곳(12.3%)이나 5~7곳을 수리한 경우(8.7%)도 있었다(표 생략). 수리한 부분은 지붕(31.4%)이나 도배(30.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화장실(22.7%), 난방시설(22.5%), 부엌(18.4%), 목욕탕(14.7%), 방(11.8%), 상하수도(11.8%), 조명시설(10.9%) 순 이었다. 이 밖에 현관(8.7%), 문턱(3.4%), 대문(1.4%), 담장(0.7%) 등 주택내외의 다양한 부분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하기 불편하여 수리를 원하는 곳이 없다는 농가는 11.2%(164호)로 대부분(88.8%)은 주택수리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수리한 부분과 비슷하게 주택수리를 원하는 1,297호 농가의 절반 이상이 화장실(16.5%), 도배(12.7%), 난방시설(12.3%), 지붕(11.6%) 수리를 주로 원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목욕탕(8.6%), 상하수도(7.2%), 부엌(6.9%), 담장(5.9%), 대문(4.8%), 방(4.2%), 현관(3.6%), 조명(2.5%), 문턱(1.5%) 등 주택내외의 수리를 원하는 부분이 다양하였다. 지난 2년간 주택을 수리한 농가수(414가구)의 3배



<표 8> 지역별 농가의 주택수리상황

N(%)

		읍	면	계	
최근 2년간 주택 수리 여부	했음	143(31.2)	272(27.0)	414(28.3)	$\chi^2=2.62$
	안 했음	316(68.8)	731(73.0)	1047(71.7)	
수리 원하는 부분	있음	411(89.5)	886(88.4)	1287(88.8)	$\chi^2=.40$
	없음	48(10.5)	116(11.6)	164(11.2)	
계		459(31.4)	1002(68.6)	1461(100)	

수리 부분	최근 2년 내 수리함* (N=414)	불편하여 수리 원함** (N=1,297)
부엌	76(18.4)	89( 6.9)
화장실	94(22.7)	214(16.5)
목욕탕	61(14.7)	111( 8.6)
난방시설	93(22.5)	159(12.3)
상하수도	49(11.8)	94( 7.2)
현관	36( 8.7)	47( 3.6)
방	49(11.8)	54( 4.2)
문턱	14( 3.4)	20( 1.5)
도배	124(30.0)	165(12.7)
전등 등 조명	45(10.9)	33( 2.5)
지붕	130(31.4)	151(11.6)
대문	6( 1.4)	58( 4.8)
담장	3( 0.7)	77( 5.9)
기타	- (-)	25( 1.9)

\* 수리한 곳 모두 선택 \*\* 가장 원하는 곳 한 곳만 선택

가 넘는 가구(1,297가구)가 주택수리를 원하고 이들 잠재적 주택수리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파악과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

4) 읍·면지역별 농가의 상수와 쓰레기처리

<표 9>에서와 같이 농가가 사용하는 상수원은 주로(82.1%) 공동상수도(44.6%)이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가수도(37.5%)이며 간이상수도(17.9%)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가의 상수원 종류는 읍·면지역간 차이가 없이 비슷하였다. 수도물 수질에 대해 절반가량은 매우 좋거나(9.7%) 좋은 편(41.4%)이라고 한 반면, 11.5%는 안 좋거나(9.0%) 매우 안 좋다(2.5%)고 하였으며 보통은 37.4%이었다. 면지역 거주 농가가 읍지역 거주 농가보다 수도물 수질이 좋다고 한 비율이 더 높으며, 이에 비해 읍지역 농가는 보통이라고 한 비율이 더 높았다. 상수원의 종류를 통제했을 때 수도물 수질과 지역간의 유의한 관계는 공동상수도( $\chi^2=12.61, p<.05$ )와 간이상수도( $\chi^2=10.21, p<.05$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지역 농가가 읍지역 농가보다 수질이 좋다고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자가수도( $\chi^2=3.06, p<.05$ )를 사용하는 경우는 읍·면지역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농가의 수도물 수질은 상수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chi^2=211.77, p<.001$ ) 공동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수질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생략). 수도물 수질과 상수원의 유의한 관계는 읍·면지역에 따라 차이 없이 나타났다.

농가에서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는 분리수거하는 경우(41.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자체적으로 소각(34.0%)하거나 마을공동쓰레기장에 처리(23.8%)하고 있었다. 읍지역에서는 면지역에서 보다 분리수거하는 비율이, 면지역에서는 읍지역에서 보다 자체 소각하는 비율이 더 높아 읍면지역간 차이가 나타났다.

농가의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사료로 활용하는 경우(32.0%)가 가장 많았고, 퇴비(25.5%)나 빈터에 매몰(16.7%) 또는 분리수거(16.0%)하거나 마을공동 쓰레기장(9.5%)에 처리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읍지역에서는 면지역에서 보다 퇴비로, 면지역에서는 읍지역에서 보다 동물사료로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 차이가 있었다.

폐영농자재는 읍·면지역 차이 없이 거의 대부분(90.0%)이 분리수거하고 있었으며 소수가 소각(8.6%)하거나 미미하게 매립(0.8%)이나 논밭두렁에 방치(0.3%)하는 경우가 있었다.

&lt;표 9&gt; 지역별 농가의 상수와 쓰레기처리

N(%)

		읍	면	계	
상수원 종류	공동 상수도	213(46.4)	438(43.7)	651(44.6)	$\chi^2=1.26$
	간이 상수도	76(16.6)	186(18.6)	262(17.9)	
	자가수도 (지하수)	170(37.0)	378(37.7)	548(37.5)	
수돗물 수질	매우 좋다	29( 6.3)	113(11.3)	142( 9.7)	$\chi^2=18.06^{**}$
	좋은 편	186(40.5)	419(41.8)	605(41.4)	
	보통	195(42.5)	352(35.1)	547(37.4)	
	안 좋은편	44( 9.6)	87( 8.7)	131( 9.0)	
	매우 안좋다	5( 1.1)	31( 3.1)	36( 2.5)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마을 공동 쓰레기장에 처리	112(24.4)	236(23.6)	348(23.8)	$\chi^2=18.47^{***}$
	빈터나 강물에 처리	2( 0.4)	3( 0.3)	5( 0.3)	
	자체적으로 소각	122(26.6)	375(37.4)	497(34.0)	
	분리수거	223(48.6)	388(38.7)	611(41.8)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마을 공동 쓰레기장에 처리	46(10.0)	93( 9.3)	139( 9.5)	$\chi^2=27.31^{***}$
	동물 사료로 활용	116(25.3)	351(35.0)	467(32.0)	
	빈터에 매몰처리	65(14.2)	179(17.9)	244(16.7)	
	분리수거	96(14.2)	138(13.8)	234(16.0)	
	퇴비	138(29.0)	239(23.9)	372(25.5)	
	소각	3( 0.7)	2( 0.2)	5( 0.3)	
폐영농 자재 처리방법	분리수거	411(89.5)	904(90.2)	1315(90.0)	$\chi^2=2.15$
	매립	3( 0.7)	8( 0.8)	11( 0.8)	
	소각	41( 8.9)	85( 8.5)	126( 8.6)	
	논두렁 / 밭두렁 방치	3( 0.7)	2( 0.2)	5( 0.3)	
	없음	1( 0.2)	3( 0.3)	4( 0.3)	
계	459(31.4)	1002(68.6)	1461(100)		

\*p&lt;.05, \*\*p&lt;.01, \*\*\*p&lt;.001

이상에서 농가의 쓰레기처리는 읍면별로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처리 방법은 달랐으나 폐영농자재는 읍면 차이 없이 분리수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읍·면지역별 농가 거주지역의 악취정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마을이나 주변에서 나는 악취정도는 36.2%가 약간(25.8%) 나거나 매우 많이(10.4%) 난다고 한 반면, 40.4%는 별로(24.8%) 혹은 거의(15.6%) 안 난다고 하였으며 23.3%는 보통이라고 하였다(<표 10> 참조). 주변에서 악취가 나는 정도는 읍·면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이 보통(50.0%)이라고 하였으며, 32.7%가 매우 만족(5.2%) 혹은 다소

만족(27.5%) 한 반면, 17.2%는 매우 불만족(3.6%) 혹은 다소 불만족(13.6%) 하였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본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과 다소 만족 사이에서 보통에 가까운(2.83) 편이었다. 거주지역의 주거환경만족도는 읍·면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악취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어( $\chi^2=91.26$ ,  $p<.01$ ), 각각 다른 경우에 비해 악취정도가 낮다고 한 경우는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았고, 악취정도가 보통인 경우는 주거환경만족도 보통이 많았고, 악취정도가 높은 경우는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았다(표 생략). 이러한 관련성은 읍면 지역 차이 없이 모두 나타났다.

<표 10> 지역별 농가 거주지역의 악취정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N(%)

	읍	면	계		
악취정도	매우 많이 난다	46(10.0)	106( 0.6)	152(10.4)	$\chi^2=7.36$
	약간 난다	120(26.1)	257(25.6)	377(25.8)	
	보통	110(24.0)	231(23.1)	341(23.3)	
	별로 안난다	127(27.7)	236(23.6)	363(24.8)	
	거의 안난다	56(12.2)	172(17.2)	228(15.6)	
주거 환경 만족도	매우 만족	25( 5.4)	51( 5.1)	76( 5.2)	$\chi^2=.36$
	다소 만족	124(27.0)	278(27.7)	402(27.5)	
	보통	231(50.3)	500(49.9)	731(50.0)	
	다소 불만족	61(13.3)	138(13.8)	199(13.6)	
	매우 불만족	18( 3.9)	35( 3.5)	53( 3.6)	
계	459(31.4)	1002(68.6)	1461(100)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가 수집한 2008 농촌사회지표 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농가의 읍·면지역별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 실태를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원시자료 가운데 가구와 농가부문 문항의 일부와, 주거 및 환경 부문문항 전부를 중심으로 비농가(522호)를 제외하고 농가(1,461호)만을 대상으로 SPSS 12.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농가의 일반적 특성을 가구주특성과 가족특성, 경제특성으로 알아 본 결과,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은 모두 읍·면 거주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면지역 가구주의 특성이 읍지역 가구주의 특성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특성간의 관련성은 면지역 가구주 보다 읍지역 가구주 간에 더욱 뚜렷하여 면지역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이나 학력에 차이 없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가구원수, 미취학자녀유무, 초중고교 취학자녀유무로 본 가족특성도 모두 읍·면지역간 차이가 있어 읍지역농가는 면지역농가 보다 미취학자녀나 초중고교 취학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고 따라서 가구원수도 더 많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읍지역보다 면지역이 더 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가의 경제특성인 영농규모는 읍·면지역간 차이가 없는 대신 읍지역농가는 겸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소득이 더 높으나 소득만족도는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읍·면지역간 농가의 일반적 특성 차이는 읍·면지역별로 가구주특성과 가족특성이 다르며, 이로 인해 읍지역농가가 겸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소득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수가 더 많고 가구주가 남성이고 젊고 학력이 높고 농축업 이외의 직업

을 갖는 경우가 많아 결국 주관적 소득만족도는 면지역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읍면간 농가의 일반적 특성 차이는 농촌가구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의 주거환경은 주택외부특성과, 내부특성, 주택수리상황, 상수와 쓰레기처리, 거주지역의 악취정도와 주거환경만족도로 알아 본 결과, 농가의 주택외부는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농가주택이 담장이 없고, 지은지 오래됐고, 단독주택이 더 많은 편이나 슬라브 양육이나 스테이트 한옥 위주의 단독주택외형은 차이가 없었으며 단독주택은 읍면지역 어디에서나 다른 주거유형보다 지은지 오래된 경우가 많다. 주택내부특성은 읍·면지역에 차이 없이 부엌은 입식, 화장실은 수세식, 난방은 기름이나 가스보일러가 많은데 비해, 목욕시설은 면지역과 읍지역에 차이가 있어 읍지역은 온수목욕시설이 면지역은 목욕시설자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농가의 주거환경은 읍면지역별로 주택내부특성보다는 외관으로 나타나는 주택외부특성 차이가 더 뚜렷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읍·면 차이 없이 약 30%농가가 지붕, 도배, 화장실, 난방시설 등 주택내외를 한 두 곳 정도 수리하였는데 앞으로도 거의 대부분 농가가 화장실, 도배, 난방시설시설, 지붕 등 다양한 부분의 주택 수리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주택이 많고 수세식화장실이나 온수목욕시설, 입식부엌 등 내부시설의 질이 미비한 경우와 함께 가구원과 주택이 고령화 되면서 농가주택개조요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주택을 수리한 농가수의 3배가 넘는 가구가 생활하기 불편하여 주택수리를 원하고 있어 농가주택개조사업이나 노인주택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공적개입이 필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상수원은 읍면 차이 없이 주로 공동상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한 자가수도인

데, 수도물 수질은 공동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면지역의 만족도가 특히 높고, 읍면 상관없이 공동상수도의 수질만족도가 높아 수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자가수도 이용 농가에 대한 관심과 개선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의 면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이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통계청 e나라지표, 2011)이 계획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쓰레기는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는 종류별로, 읍면지역별로 처리방법이 다른데 일반생활쓰레기는 물론 폐영농자재의 자체소각은 공기오염과 관련하여 대안적인 처리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이다. 마을 주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와 나지 않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이며, 거주지역의 주거환경만족도도 만족하는 편과 보통의 중간 정도로 둘 다 읍·면지역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거주지역환경만족도는 읍면차이 없이 악취정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 쓰레기처리와 같은 악취원인을 파악하여 악취발생을 줄이는 것이 거주지역환경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상수와 쓰레기 처리방법은 개별농가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마을을 단위로 하는 광역차원과 유관한 것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정책과 지도에 읍면간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연구기관이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를 모집단으로 다단계화집락추출 하여 다년간 축적한 농촌생활지표 자료를 개별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생활과학의 가족생활, 여가생활, 건강생활, 생산과 소비 등 다른 전공분야나 학제 간 연구에 이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첫 시도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자료는 동일한 연구대상자에게 격년으로 같은 설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앞으로 패널분석이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가능한 강점을 갖고 있어 횡단연구 중심의 개인자료수집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는 전국 읍면지역 일반가구의 확률표집자료이면서 원시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변수간의 관련성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전국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전수조사하여 동부와 읍면부로 나눠 각 문항의 빈도를 제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가 원시자료 대신 주어진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2차분석이 가능한 점에 비하면 개별연구자의 자료활용 가능성이 훨씬 폭넓은 것이다.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는 각 문항을 지역별, 영농여부별, 가구주 또는 응답자 특성별로 문항전체는 빈도로 각 속성은 퍼센트로만 제시하고 있어 보고서에 통계적 유의차를 검증한 값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영농여부별 자료와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조사기관의 보고서와 차별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중에서 농가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응용하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정, 취학자녀가 있는 가정, 환자가 있는 가정, 노인 가정, 독신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이용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나 특정상황에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자료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면서 전국규모를 대표하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집된 원시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야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과정에서 파악된 예를 들면, 농촌생활지표 자료의 개별가구 주거환경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각 가구의 주거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없는 것이나, 주거이동계획여부나 쓰레기/환경만족도가 다른 연도의 다른 부문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연구결과를 심화시키는데 다소 제약이 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이 자료를 활용한 후 담당기관에 자료의 개선점을 제안하여 보완한다면 유용성이 향상된 질 높은 자료축적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생활과학 관련분야에서 농촌가정생활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김정호(2005). 농촌주택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7(2), 71-89.
- 농촌진흥청(2008). 2008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생산 및 소비, 교육부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 농촌진흥청(2009). 2009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인구 및 사회, 가족생활, 여가생활,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정보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 윤주현 편(2002). 한국의 주택. 대전: 통계청.
- 이해욱(2009). 농촌거주유형분석을 통한 농촌주택 계획방향 연구. 농촌계획, 15(2), 43-57.
- 장성준(2010). 농촌지역의 마을과 주택의 유형과 진화: 13개 마을사례에 대한 1980년대와 2010년 현황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7), 63-74.
- 정건채(2005). 문화마을의 현황과 주택외관과 입면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1), 1-10.
- 조재순(1999). 1가구 거주주택과 2가구 이상 거주주택의 주거 특성 변화: 1985-1995. 한국주거학회지, 10(1), 97-109.
- 조재순(2000). 실천적 측면에서 본 주거학 연구의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57-265.
- 조재순(2007). 주거학 분야 연구 동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립30주년 기념 특별호, 73-81.
- 주거학연구회(2005).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 주대관(2005). 농촌주택의 사회적 중요성과 개선 방향, 주택, 0506, 58-64.
- 하성규·윤원근(1989). 농촌주택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경제,

12(4), 105-120.

통계개발원(2008). 한국의 인구·주택: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보고서. 통계개발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1a). 2009 한국의 사회지표.

<http://www.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1b). 197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http://www.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www.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1c). 200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http://www.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www.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1d)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http://www.census.go.kr/hcensus>

통계청 e나라지표(2011).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

Cho, J.(2008). The changes of housing characteristics occupied by two or more households from 1995-2005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9(1), 53-62.

Rossi, P.H.(1980). *Why Families Move* (2nd ed.). Sage Publication, Inc.

접수일 : 2011년 03월 11일

심사일 : 2011년 04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0일